

구약논찬

제 16권 4호(통권 38집) 2010년 12월 31일

유 윤중(평택대) 한국 구약학회 '에레츠 이스라엘을 가다' 187
이 글은 한국 구약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이스라엘 방문기를 여행 일지뿐만 아니라 유용한 역사적, 성서적 설명과 함께 덧붙여 구약성서 및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글은 8박 9일에 걸쳐 방문한 60여 곳 이상의 역사적, 고고학적 장소와 중요 박물관과 멋진 자연 경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다.

Yoo, Yoon Jong KOTS goes to 'Erets Israel' 187

한국구약학회 ‘에레츠 이스라엘을 가다’

유 윤중 | 평택대

1. 시작하면서.

2010년 한국구약학회는 50주년을 맞이했다. 학회인 만큼 학술대회와 더불어 계획한 것은 회원들이 함께 구약성서 세계의 핵심이 되는 ‘에레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2010년 6월 17일에서 25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이었다. 이 글은 성격상 여행기이지만, 제한된 범위이지만 관련된 전반적인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를 함께 논함으로써 학문적인 내용도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

2. 성서의 땅 순례

1) 첫째 날, 6월 17일(목)

원래 지정한 시간은 1시 30분이었지만, 2시 정도가 되자 거의 모든 사람이 도착했다. 부부 동반으로 참여한 회원은 김 회권, 박 경철, 이 동규, 장 춘식, 하 경택으로 10명, 강 승일, 김 병훈, 김 창주, 소 형근, 왕 대일, 이 경숙, 이 사야, 이 영미, 이 은애, 이 희학, 유 연희, 유 윤중, 정 철성, 최 기수, 최 만자, 한 동구, 허 성균(가나다 순) 17명, 그리고 이번 여행을 주

관한 로템 여행사 유 재호 사장이 인솔자로, 총 28명이다. 예상 비행 시간은 12시간이란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다. 오후 4시 30분 출발이다. 시차가 우리 나라와 6시간 차이가 난다고 하니, 도착하면 같은 날 밤 10시 20분이 될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도 월드컵에 대한 열기는 뜨거워 우리 나라가 아르헨티나에게 1:4로 패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약 12시간의 비행 후 어두컴컴한 밤에 비행기가 도착한다.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후덥지근한 날씨와 함께 우리를 안내할 가이드와 버스 기사가 우리를 반긴다. 이번에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는 유 병성 목사님으로, 현재 벤구리온 대학교 성서 및 고대 근동학과에 재학 중인 분이다. 운전 기사는 두르드 쪽으로, 현재 팔레스타인 최고의 버스 회사에 기사로 근무 중인 분이다. 벤구리온 공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샤론 평야와 아얄론 골짜기, 그리고 엠마오를 거친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야경이 이채롭게 펼쳐진다.

2) 둘째 날 6월 18일(금)

(1) 예루살렘(분문)

긴 여행 후 피곤했지만, 첫 날이라 들뜬 마음으로 시작했다. 첫째로 들른 장소가 '분문'이다. 이는 제 2 성전 시대의 이름을 본 딴 것이다. 원래 '분문'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정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을 옮길 때에는 이 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 문으로 들고 나갈 경우 그 문이 오염되기 때문에, 지정된 한 문을 통해 나감으로써 그 문만 부정해지므로, 그 문만 정화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제 2 성전 시대에 이 문은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었으며, 죽은 시체를 장례 치르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이 문의 이름을 '분문'이라고 불렀다.

(2) 예루살렘(통곡의 벽)

분 문을 통과해 우측 편에 흔히 말하는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헤롯 성전의 서쪽 벽에 이르렀다. 서쪽 벽의 높이는 30미터에 이른다.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 건축한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지만, 유일하게 남은 부분이 성전의 서쪽 벽이다.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의 서쪽 벽은 485미터, 동쪽 벽은 470미터, 북쪽 벽은 315미터, 남쪽 벽은 280미터나 된다.¹⁾ 이 성전 벽의 건축에 사용된 돌은 길이 14미터, 무

계 400톤이나 되는 돌을 비롯해 평균 2-5톤의 돌을 이용해 매우 웅장하면 서도 다양함을 자랑하는 예술적 섬세함을 잃지 않았다.²⁾ 바르 코크바의 반란(132-135) 이후 하드리아인 황제가 유대인을 예루살렘에서 축출한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일한 유대인 유적지였던 이 서편 벽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이러한 관습을 본 로마인들이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공식용어는 “서편 벽”이라고 부른다. 들어갈 때 남녀가 들어가는 문이 달랐다. 여자들은 서편 벽에 직접 들어가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 서편 벽 안쪽으로 들어가자 무너진 벽 아래로 생긴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유대인들의 도서관 및 기도실로 여전히 검은 복장을 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책을 읽거나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 중이었다.

(3) 예루살렘(고고학 공원)

이어서 들른 곳은 고고학 공원(Ophel Archaeological Garden)이었다. 고고학 공원은 제 1 성전 시대에 정부 건물이 들어서 있던 곳으로 서편 벽 옆에 위치해 있다. 이름 그대로 다윗-솔로몬 시대부터 오토만 시대까지의 다양한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헤롯이 건설했다는 헤롯 거리였다. 헤롯 거리에는 주후 70년 당시 무너진 돌 하나가 역사의 흔적 속에 남아 있다. 헤롯 대왕이 건설한 벽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최고 길이 14미터, 무게 400톤이나 되는 돌로 이루어져 있다니 피라미드의 건축과 견줄 정도로 어마어마해 보였다. 성벽 오른쪽에 성문의 흔적이 보인다. 원래 성전의 서쪽은 중앙 골짜기(요세푸스는 Tyropoeon 계곡이라고 부름) 지역 이어서, 성전과 도시를 연결하기 위하여 골짜기 위를 통과하는 다리를 건설해, 성전 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었다. 1838년에 발굴된 “로빈슨 아치”라고 부른다.³⁾ 아치의 흔적만 남아 역사의 아픔을 증거하고 있다. 헤롯 거리를 나와 복잡한 계단을 내려가니 십자군 시대에 건설된 성채의 흔적에 그 후에 등장한 맘룩(Mamelukes) 시대(A.D. 1250-1517)의 역사까지 남아있다. 이 성채 위에 세워진 망루는 주변의 광경과 분 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길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서쪽으로 방향을 틀자 오마야드 시대(A.D.

1) E. Wager, *Illustrated Guide to Jerusalem*,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1988), 44쪽.

2) 최 창모, 「돌맹이를 먹고 사는 사람들 1」(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135쪽.

3) Wagner, *Illustrated Guide to Jerusalem*, 47쪽.

661-750)의 궁전이 위치한다. 그 궁전에서 나선형 계단을 타고 내려가자 비잔틴 시대(A.D. 324-638)의 주거지가 나온다. 비잔틴 시대의 방들과 물 저장소가 등장한다. 비잔틴 시대의 특징은 모자이크이다. 그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있다. 오토만 시대(1517-1918) 성벽의 동쪽 지역은 오펬(Ophel, 쌓아 올린 언덕)로, 다윗 성과 성전산 사이의 지역이다. 성경에는 이 지역을 높여 축대를 쌓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지역에는 유대인, 로마, 비잔틴, 무슬림 시대의 주거층이 나온다. 철재로 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지역을 구경했다. 계단에서 나오니 오마야드 시대의 공공건물이 있던 흔적이 기둥으로 남아있다. 이 구조는 오마야드 시대의 궁전을 지원하는 공공건물과 주거층이다. 십자가의 흔적이 기둥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비잔틴 시대의 교회에서 가져온 돌로 보인다. 나와서 위쪽을 보니 거대한 돌계단이 보인다. 위로 알 약사 모스크가 보인다. 홀다의 집이 위치했다는 전설에 기초해 세워진 홀다 문으로 인도하는 계단이다. 그 계단은 일반 계단과는 달리 일정한 구조로 된 것이 아니라, 약간 뒤틀려 있다. 그 이유는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뛰지 말고 조심스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4) 예루살렘(성서의 땅 박물관)

버스를 타고 방문한 곳은 기바트 램에 위치한 “성서의 땅 박물관”이었다. 성서의 땅 박물관은 성서 시대에 성서에 나오는 각 나라들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설명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및 그리스 지역에서 발굴된 실린더 인장, 청동 제품, 상아, 모자이크를 포함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총 20개의 갤러리에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부터 탈무드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정리해 놓았다.⁴⁾

버스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간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현지 식으로 식사를 했다. 주 메뉴 하나에 나머지는 뷔페 식이었다.

(5) 베들레헴(라헬의 무덤)

이어서 근처에 있는 라헬의 무덤(창 33: 18-19)으로 갔다. 베들레헴의 외곽 지역으로, 검문소 근처 있다. 가면서 본 웨스트 뱅크 지역을 둘러싼 보안

4) B. Borowski, *Bible Lands Museum Jerusalem: Guide to the Collection*, (Jerusalem: Keter Enterprise, 2002).

장벽이 여기가 이스라엘임을 느낄 수 있었다. 삼엄한 경비를 통과한 후 들른 라헬의 무덤도 실제의 무덤이라기보다는 전승을 통해 내려온 것으로 큰 상자를 관으로 놓고 무덤으로 섬기고 있었다. 이곳도 남녀가 들어가는 문이 달랐다. 양쪽으로 구분되어 서로가 반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6) 예루살렘(감람산)

베들레헬을 떠나 버스는 히브리 대학교가 위치한 스코푸스산을 거쳐 감람산으로 올라간다. 날이 뜨겁다.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은 감람산의 동쪽 지역으로 벳바게로 불린다(마 21: 1-16; 막 11: 1-11). 벳바게는 “달익은 무화과의 집”이다. “달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에서 열매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기사는 벳바게라는 지명을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벳바게를 지나 감람산 정상에 도착해 처음으로 들른 곳은 승천당이다. 승천당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서 승천했다는 눅 24장 50-51절에 근거한 것이다. 원래 이 승천당은 380년경 승천을 상징해 지붕 없이 8각형의 교회를 세웠다. 십자군 역시 승천을 기념하여 천장을 만들지 않고 재건했지만, 이슬람에 의하여 모스크 모양의 돔이 덮여, 교회와 모스크가 합해진 돔 형태의 건물로 남아있다. 이 돔의 내부에는 예수께서 승천 시 밟아 발자국이 남겨졌다는 바위가 남아있다. 이 전승은 중세 이후에 내려온 이야기이다.

이어서 주기도문 교회에 들렀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예수께서 감람산의 한 동굴에서 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알려진 초대 교회의 전승에 기초해 교회가 세워졌다가,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후에 십자군이 다시 세웠다. 아름다운 정원이 유명한 이 교회에는 세계 약 90여 개어로 된 주기도문이 교회 주랑에 걸려있다. 최근 한국 개신교회의 지나친 열성에 의해서 한글 개역개정판이 걸리게 되면서 카톨릭 교회가 제공한 주기도문과 함께 걸리게 된 이야기를 들었다. 단지 해프닝으로 끝난 이야기지만 한국 개신교회의 전투적 열성주의가 여기까지 왔나 싶어 씩씩했다.

내려오는 길목에 눈물 교회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을 보면서 운 사건(마 23: 37; 눅 19: 41)을 기념하여 세워졌다. “주께서 우셨다”라는 말의 라틴어 “Dominus Flavit”가 돌 판에 새겨져 있다. 바닥과 천장이 모자이크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이어서 뜨거운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좌측에 예언자 학개와 스가라의 무덤이라는 표지가 나온다. 이어서 좌측에 공동묘지가 이어진다. 주로 이스라엘 사람만 묻힐 수 있다고 한다.

언덕의 중간 아래쪽에 오자 겿세마네 동산이 나온다. 원래 이 지역은 동굴이었다. 이 동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 곳이다. 이 동산에 위치한 겿세마네 동산 교회, 일명 만국 교회에 들어갔다. 제단 앞에 널찍한 바위가 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곳이다. 교회를 나오자 정원에는 많은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다. 큰 나무는 1000년이 넘는다고 한다. 고대에 이 지역은 근처에 자란 올리브 열매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다. 겿세마네라는 말은 아람어로 “가트-사마나” 즉 “기름 짜는 곳”이다. 예수님은 기름 짜는 곳에서 눈물을 짜셨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잡히기 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고뇌에 찬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마 26: 36-46).

(7) 예루살렘(기드론 골짜기)

감람산을 내려와 기혼 샘 건너편의 기드론 골짜기 혹은 여호사밧 골짜기(을 3: 2)를 따라가면서 첫 번째로 들른 곳이 압살롬의 탑(삼하 18:18)이다. 하지만 이 기념탑은 그 구조로 보아 제 2 성전 시대에 만들어졌다. 골짜기를 따라가니 두 개의 묘가 더 나온다. 첫 번째로 스가라의 묘이다. 여기에서의 스가라는 예언자 스가라가 아니라, 대하 24장 20-22절에서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이다. 두 번째 묘는 헤실의 가족의 묘이다. 제사장 가문의 헤실은 느 10장 20절과 대상 24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다. 이어서 멀리 바로의 딸 무덤이 보인다. 이 무덤은 이집트 스타일이며, 주위에 피라미드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 오후부터 시작된 강한 햇볕 속의 걸음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하지만 한 곳을 더 가야 한다.

(8) 예루살렘(아겔다마)

힌놈 골짜기에 위치한 ‘아겔다마’이다. 예수를 팔아 넘긴 가롯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곳이다(행 1: 18-20). 힌놈 골짜기는 지옥의 그리스어인 “게헨나”의 어원이 된다. 이곳에 위치한 ‘아겔다마’는 ‘피밭’이라는 의미이다. ‘나그네의 무덤’으로 알려졌던 이곳은 십자군 시대에도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다.

1874년 그리스 정교회가 세운 성 오누프리우스 수도원이 현재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이곳에는 바위를 파서 만든 많은 무덤들이 있다.⁵⁾ 교회가 거의 문 닫을 때가 되어 겨우 사정해 들어가 수도원을 둘러보고 나왔다. '아겔 다마'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은 뭘 생각할까? 예수를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긴 가롯 유다와 우리의 모습이 겹쳐진다. 긴 하루였다.

3) 셋째 날 6월 19일(토)

(1) 예루살렘(비아돌로로사)

새벽 6시에 모였다. 새벽에 '비아돌로로사'(슬픔의 길)를 순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아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수난 받은 과정을 14곳으로 나누어 14세기경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 확정된 길이다. 이 길은 전통적으로 예수께서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 즉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다. 순례를 위해 걸어서 다마스쿠스 문으로 향했다. 약 10여 분 걸으면서 룰랑 드보가 있었던 "에코 비빌리크"를 지나고, 고든의 갈보리라고 불리는 "정원 무덤"을 멀리서 보면서 지나갔다. 이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이다. 약 10여 분을 걸으니 다마스쿠스 문이 나온다. 이 문을 따라 직선으로 가면 다마스쿠스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을 통과하면 아랍 지역이 시작된다. 골목을 따라가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 올라가다가 왼쪽의 작은 문으로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나온다. 사실 건너편 지역의 오마리 학교 운동장이 시작점이다. 원래 안토니우스 성채가 있던 곳이었다. 거기에 위치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셨다(마 27: 11-14). 그러나 현재 학교이므로 들어갈 수 없어 제 2 처소인 선교교회와 채찍질교회에서 오늘의 순례를 시작했다. 교회를 나와 내려오다가 주후 135년 하드리아안 황제가 세운 '에케 호모 아치'가 보인다. '에케 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요 19: 5)를 의미하며, 그 말을 한 장소가 바로 이 아치 앞이라는 이야기이다. 제 3 처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넘어진 곳이다. 바로 옆의 제 4 처소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이다. 다시 골목을 꺾어 우측으로 오르막이 시작된다. 제 5 처소는 구레네 사람 시모이 강제로 십자가를 진 장소이다(막 15: 21). 제 6 처소는 베로니카가 손수건으로 예수님

5) 최 창모, 「돌맹이를 먹고 사는 사람들 1」, 107쪽.

의 얼굴을 닦아 드린 곳이다. 제 7 처소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진 곳이다. 제 8 처소는 예수님께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위로한 곳이다. 제 9 처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진 곳으로 콤포교회(Compo Church)가 서 있다. 제 10-15 처소는 성묘교회 안에 위치한다. 제 10 처소는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장소이다(요 19: 23-24). 제 11 처소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다(요 19: 17). 제 12 처소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곳이다(마 27: 45-51). 제 13 처소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얹힌 바위이다(요 19: 38-39). 제 14 처소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장례 치르고 묻은 무덤이다(마 27: 59-60). 성묘교회 안은 매우 복잡하다. 예수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다른 종파들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촛불이 계속 타고, 순례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느낌보다는 혼란스러웠다. 아니 실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예수님이 묻혔던 돌무덤은 어디 가고, 각 종파의 욕망의 무덤만 보일 뿐이니 말이다.

(2) 예루살렘(베다니)

‘비아돌로로사’를 마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 식사를 한 후, 다시 버스에 올랐다. 오늘이 안식일이라 예루살렘의 대부분은 문을 닫아 일정을 조정했다. 오늘은 유다 광야 지역이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이 베다니이다. 베다니는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이다. 성경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고향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다(요 11: 43-44). 원래 벳바게와 함께 구경할 정도로 근거리로 위치하지만, 현재 보안 장벽으로 인해 먼 거리를 둘러서 왔다. 베다니는 벳바게 아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주변에 있다. 자그마한 아랍 마을을 통과해 들어간 곳이 나사로가 살아난 곳을 기념하는 ‘성 나사로 교회’가 위치해 있다. 교회의 우측에 십자군 교회의 터 위에 세운 그리스정교회 교회가 위치하며, 그 옆에 모슬렘 사원도 같이 있다. 교회를 나와 조그마한 문을 통과해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맨 안쪽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 그 무덤에서 같이 사진을 한 컷 찍었다. 다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에 감사하면서.

(3) 여리고

버스는 30-40분 정도 달려 여리고에 이른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해저 258미터에 위치한다. 소박한 시골 마을처럼 정겹다. 버스가 첫 번째로

선 곳은 삭개오와 관련된 돌 무화과나무 앞이었다. 우리말은 뽕나무로 되어 있다. 열매는 매우 작아 보였다.

이어서 텔 여리고로 올라갔다. 1868년부터 시작된 여리고 성 발굴로 인하여 여리고는 신석기 시대인 주전 8000년부터 사람이 주거한 흔적이 나오는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임이 밝혀졌다.⁶⁾ ‘여리고’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아리호’라는 달의 신에게 받친 도시라는 의미이다. 사막 가운데 위치한 이 도시에서 고대 근동의 주요 신이었던 달의 신 숭배가 성행했던 곳임을 암시한다. 둘째, 고대 아람어의 일종인 시리아 어에서 유래된 ‘향기’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그리스 및 로마시대에 여리고는 향수로 유명했다. 특별한 발삼 향을 이용해 값비싼 향유를 제조했다. 그리하여 여리고는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했다. 그리하여 헤롯 시대에 안토니우스는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여리고를 바쳤다.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큰 도시였다는 의미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사해의 진흙을 가져가 발랐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 여리고가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지역이었는지 알 수 있다. 하스몬 및 헤롯 대왕 시절에 여리고에는 텔 여리고에서 약 6킬로 떨어진 곳에 많은 겨울 별장들이 지어졌다.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헤롯 대왕이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헤롯 대왕은 죽기 몇 일 전, 자기가 죽었다는 헛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소식에, 자신의 죽음에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감금하고, 자기의 여동생인 살로메에게 자기가 죽으면 귀족들을 처형하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이 귀족들의 친인척이 슬퍼하며 울 것이며, 그 울음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대치시키려 했다.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 살로메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사막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물의 문제가 가장 궁금해진다. 이 도시에 샘이 나온다. 이 지역은 유대 광야의 산맥이 끝나는 지점이다. 지대가 낮다. 많지 않은 강우량이 지면에 스며들어 지층의 아래쪽을 흘러 해저보다 낮은 지대인 여리고에서 샘이 형성되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여리고 성의 고고학적 발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다. 초기 청동기 IV 시대(2200-2000 B.C.)와 중기 청동기 시대(2000-1550 B.C.)에 이르기까지의 고고학적 증거는 발견되지만, 정작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 함락과 관련된 후기 청동기 내지는 철기 시대의 고고학적 증거는

6) 김 성, 「성서 고고학 이야기」 (서울: 동방미디어, 2002), 99-101쪽.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성서학의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텔 여리고는 이중 성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의 안쪽 성벽은 초기 청동기 시대지만, 뒤쪽은 중기 청동기 시대의 성벽이다. 케년(Kenyon)이 발굴한 흔적(중기 청동기 시대)과 가르스탕(Garstang)이 발굴한 흔적(초기 청동기 시대)도 여전히 남아있다. 성에서 서쪽 편을 바라보면 유대 산악 지역이다.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시험 산이며, 산 중턱에 수도원이 있다. 케이블카가 산 중턱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텔을 나와 약간 올라가니 여리고의 샘으로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 맑게 했다는 엘리사의 샘(왕하 2: 19-22)이 나왔다. 현재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 샘 위에 창고 건물을 지어 관리하고 있었다. 중간 중간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이상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여리고가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2) 쿨란

쿨란에 와서 현지 식으로 식사를 했다. 사막이라 날씨가 장난이 아니게 뜨거웠다. 식사 후 쿨란을 소개한 짧은 영상을 구경했다. 당시의 쿨란 공동체 한 청년이었던 ‘요한’이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이야기를 당시의 랍비들이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쿨란 공동체의 성격을 예세네 파와 연결시키며, 기독교의 근원으로 이해하려는 현대 해석을 유대교적인 시각에서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텔 쿨란으로 나갔다. 사막 가운데 웅장한 산이 앞에 나타나며, 산 중턱에 동굴이 보인다. 산 아래에 텔이 위치해 있다. 바로 앞에 이사야 두루마리가 발견된 제 4 동굴이 보인다. 사해 사본은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사본의 이름 역사 발굴된 동굴의 번호에 따라 매겨져 있다. 쿨란 공동체와 그들이 남긴 문서와 발굴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설들과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⁷⁾

텔에는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흔적으로 부엌, 창고, 물 저장소, 정결 욕조, 전망대, 예배 처소, 도자기를 제조했던 방, 필사자의 방 등이 발굴 및 재구성된 부분이 뒤섞인 채 존재한다. 가이드는 현재 쿨란 공동체에 성격을 둘러싼 한 논쟁을 소개했다. 마겐(Yitzhak Magen)과 펠렉(Yuval Peleg)라는

7) 쿨란 공동체와 사해사본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천 사무엘, 「사해사본과 쿨란 공동체」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4); Philip R. Davies et al, *The Complete World of the Dead Sea Scrolls* (London: Thames & Hudson, 2002).

두 고고학자는 쿰란 공동체를 전통적인 해석인 종교적 공동체가 아니라, 빗물이 쌓인 후 남게 된 진흙을 이용하여 도자기를 만들던 장인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수로의 체계가 너무나 정교하며, 쿰란에서 잉크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⁸⁾ 이는 지금까지 쿰란 공동체가 종교적인 공동체라는 주장을 뒤엎고 세속적인 공동체라는 주장이다.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해석이며, 여전히 뜨거운 논쟁중이다.

(3) 마사다

이어서 버스는 사해를 끼고 달리기 시작한다. 오른쪽으로 유다 광야의 웅장한 산들과 왼쪽의 사해가 이루는 광경 자체만 해도 멋있다. 갑자기 우측에 뭔가 비범한 산이 눈에 들어온다. 마사다이다. ‘마사다’는 성이라는 뜻이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후 70년 로마와의 전쟁 시 최후의 항전지로, 마침내 자결로서 최후를 마친 뒤 함락 당한 이야기는 요세푸스를 통해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해진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랐다. 사해에서 430미터 높이이다. 그 규모와 사방의 모습에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그러나 역사는 아픔이 점철되어 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사다로 와 최후의 항전을 다짐했다. 어린이와 여성까지 포함해 약 960명이었다. 항전은 약 4년간 지속되었다. 그 항전의 최고위 지도자는 엘리에자르 벤 아이르였다. “우리 아내와 자녀가 옥보임을 당하기 전에 그들을 죽이고...우리의 자유와 멋진 장례를 기념합시다”라는 그의 마지막 연설은 너무나 유명하다. 로마 군 10군단이 공격하기 위해 쌓았던 경사로가 보인다. 멀리 10군단의 주둔지도 보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최후의 항전을 가능케 했던 기본 시설은 헤롯 대왕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로마가 자신을 배반할까 두려워해, 마사다 정상 바로 아래 지역에 궁전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특별한 궁전을 이용하지 않았다. 후에 이스라엘이 유대 전쟁의 최후의 항전지로 이용했다. 로마의 분봉 왕이지만, 건축에 열중한 헤롯의 유적은 엄청난 규모와 광범위한 지역이어서 여전히 이스라엘 곳곳에 남아있다. 마사다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지역, 창고, 목욕탕, 물 저장소,

8)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John Noble Wilford, "Archaeologists Challenge Link Between Dead Sea Scrolls and Ancient Sect," in *New York Times* (August 15, 2006).

회당 등의 유적이 1963-65년에 고고학자 이가일 야딘(Yigael Yadin)의 주도하에 발굴되었다. 그 결과 요세푸스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었다.

(4) 엔게디

마사다에서 나와 다시 왔던 길을 올라오다가 엔 게디에 들렀다. '엔 게디'란 '목양의 샘'이란 의미이다.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이다. 버스에서 내리자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아가서는 엔게디를 '아름다운 포도원'(1: 14)이 있는 곳으로 묘사했다. 눈앞에 보이는 산 중턱의 곳곳에 동굴이 뚫려 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동굴들이다(삼상 24: 4). 엔게디 폭포가 근처에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쿰란의 기념품 가게로 향했다.

(5) 사해

쿰란에서 기념품 구입을 마친 후, 기다리던 사해 수영 시간을 맞이했다. 쿰란 지역 앞 바다에 마련된 수영장이다.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초라해 보였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말로만 듣던 사해 수영에 들떠, 모두가 어린 아이가 되어 있었다. 수영을 시도했지만 부력이 너무 높아 발이 자꾸 떠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사해는 사막 기후이고, 염분이 많아 사해 위의 하늘은 오존층이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자외선 차단이 잘되어 사해에서의 수영은 살갓이 타도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한다. 사해의 물 또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에 좋다고 한다. 또한 사해에서 나는 진흙은 피부 마사지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도 신기한 마음에 진흙을 온 몸에 발라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석유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사해를 주셨다"고 할만큼 사해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자연 자원이 되었다. 사해 자체에는 생명이 살 수 없지만, 사해에 포함된 풍부한 미네랄은 화장품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

수영을 더 즐기고 싶었지만, 사해의 찌물이 눈에 들어가 눈이 따가워 도저히 수영을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나와 해변에 마련된 샤워기에 몸을 씻고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경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밀면서 바닷가의 모래사장 쪽으로 몰아붙인다. 갑자기 긴장감이 들고, 사람들은 수군 거린다. 난 직감으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나보다 생각했다. 갑자기 총성

이 몇 발 올린다. 깜짝 놀라 더욱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상황이 해체되고 사람들은 옷을 둔 곳으로 올라갔다. 오면서 물어보았다. 주인 없는 미확인 가방을 해체하는 방법이었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간단한 검사 후 폭발물이 아니면 총으로 폭발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 없는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열어보다가 폭발물이 폭발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에는 주인 없는 가방이 발견되면 무조건 신고하고, 보안관이 와서 검사 후에 처리한다고 한다. 이스라엘을 실감나게 한 각본 없는 경험이었다.

(6) 와디 켈트

사해 수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들른 곳이 와디 켈트였다. '와디'란 사막에서 내리는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형성되는 강을 의미한다. 이 와디 켈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까지 유다 광야에 형성된 계곡이다. 이 계곡 길은 고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길이다. 예수님도 다녔던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와디에 지어진 수도원도 유명하지만, 시간관계상 들을 수 없었다. 하늘을 보았다. 밤 하늘의 별이 유난히 우리를 반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보았던 별이었을 것이다.

4) 넷째 날 6월 20일(일)

(1) 주일 예배

주일 아침이다.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렸다. 왕 대일 회장님의 사회, 최 기수 교수님의 기도, 장 춘식 교수님의 설교, 허 성군 교수님의 축도 순서로 이어졌다. 장 춘식 교수님은 올해 8월말을 기점으로 배재대학을 퇴임하게 된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이 성지 연수에 참여하셨다. 자신의 신학 여정을 따라 오면서 구약성서를 전공하게 된 계기, 특별히 주 전공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시면서 한 공동체 내에서 신앙적, 인종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해 주셨다.

(2) 에인케렘

아침 식사 후 버스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텔아비브로 가는 1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에인케렘에 들른다.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위치한 이 마을

은 매우 포근하며 평안한 느낌을 갖게 한다. ‘포도원의 샘물’이라는 의미는 참 정겹게 들린다. 샘을 판 사람의 이름이 담긴 것이 아니라, 포도원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나는 샘물은 달콤해 포도를 키우기에 적합하다. 신약성서는 노년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향이며, 마리아가 이 마을을 방문하여 서로 태 중에서 예수와 세례 요한이 만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눅 1: 39-45). 성 세례요한교회를 방문했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 흔적 위에 현재의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를 나와 보니 맞은 편 산 위에 거대한 교회가 보인다. 새로 화려하게 지어진 러시아정교회 건물도 보이고, 그 아래쪽에 마리아 방문 교회가 나무와 마을 사이에 어렴풋이 보였다.

(3) 쉘펠라 지역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다. 이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지역을 ‘쉘펠라’라고 부른다. 이를 개역개정판에서는 ‘평지’라고 부른다. 히브리어 동사 샬렐은 ‘낮아지다’를 의미하지만, 쉘펠라는 평지처럼 낮은 지역은 아니다. 산과 평지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평야 지역과 유다 산지 사이의 지역이다. 성서에서 이 지역은 올리브와 돌무화과 나무로 유명하다(대상 27: 28; 왕상 10: 27).⁹⁾ 이 쉘펠라 지역은 골짜기와 언덕이 교차로 등장한다. 유명한 다섯 개 개의 골짜기는 아얄론 골짜기, 소렉, 엘라, 구브린, 라기스 이다. 아얄론 골짜기 내의 주요 도시는 엠마오와 게셀이며, 소렉 골짜기는 담나와 예글론이다. 이 두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연결된다. 엘라 골짜기 내의 주요 도시는 소고와 아세가로, 베들레헴과 연결된다. 구브린 골짜기의 주요 도시는 마레사이며, 라기스 골짜기와 함께 헤브론으로 연결된다. 아하로니는 쉘펠라 지역을 아얄론, 소렉, 엘라의 3대 골짜기를 이야기한다.¹⁰⁾

(4) 게셀

쉘펠라 지역의 첫 번째 방문지는 게셀이었다. 게셀로 들어가는 길은 먼지가 자욱히 날리는 들판길이다. 우측 마을에 기막히게 예쁜 부켄베리아 꽃이 만발해 우리 일행을 반기고 있다. 약 1킬로를 걸어 텔에 도착해, 나무 그늘 아

9)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trans. by A. F. Raine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25쪽.

10)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26쪽.

래에 모였다. 게셀은 고대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군사적으로도 게셀이
 뚫리면 예루살렘까지 바로 이어지므로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게셀에 대
 한 기록은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의 투투모세 3세(1490-1436 B.C.)의 비
 문¹¹⁾에 나오며, 메르넵타 석비(1207 B.C.)에서도 게셀이 이스라엘과 함께
 메르넵타의 점령지 명단에 나온다. 님롯의 왕궁벽에 남겨진 디글랏 필레세르
 3세의 원정 기록(736-734 B.C.)¹²⁾에도 게셀은 Ga-az-ru로 나온다.¹³⁾

게셀은 성서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나안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거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가나안 시대인 수 10장
 13절은 라기스와 싸울 때 등장하는 게셀 왕 호람을 언급한다. 게셀에 대한
 가장 큰 논쟁점은 왕상 9장 15-17절에 기록된 솔로몬이 건축한 성문 구조
 에 있다. 하술, 므깃도, 게셀에 대한 성문 구조는 casemate room을 가진
 것으로 유사해, 성서 기록의 역사성을 강화시켜 준다. 우물의 구조 또한 유
 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셀의 경우 7미터 정도 수직 터널을 파고, 수평
 으로 45미터를 다시 파 들어가 샘과 연결된 구조이다. 성문 쪽의 파괴된 흔
 적은 아마도 주전 925년 시삭의 침략 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게셀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발굴물은 '게셀 칼렌다'일 것이다.¹⁴⁾ 텔 한쪽에
 게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게셀 칼렌다의 복제품이 같이 복원되어 있다. 당
 시의 한 농부가 계절별로 해야 할 농사일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당시의 삶과
 히브리어 언어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남아 있는 고고학적 흔적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일렬로 늘어선 돌들이다.
 돌의 높이는 달랐지만, 10개 정도의 돌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 산당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주변 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해, 산당이라는 주장
 이 타당해 보인다. 이 산당은 중기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5) 벤세메스

벤세메스는 소렉 골짜기에 위치하며, '태양의 집'을 의미한다. 아마 태양 신
 숭배와 관련된 지명으로 보인다. 블레셋에서 빼앗긴 법궤가 돌아온 이야기로

11) James M. Hoffmeier, "The Annals of Thutmose III," in *COS II* (2000), 7-13쪽.

12) K. Lawson Younger, Jr., "The Calah Annals," in *COS II* (2000), 284-86쪽.

13) 최 창모, 「돌맹이를 먹고사는 사람들 1」, 351-52쪽.

14) 게셀 칼렌다의 내용은 다음을 보라. P. Kyle McCarter, "The Gezer Calendar (2.85)" in *COS II* (2000), 222쪽.

유명하다(삼상 6: 9-18). 벤세메스에서 약 3킬로 떨어진 지역에 삼손이 태어나고 자란 소라 지방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 너머에 엘라 골짜기가 있다. 엘라 골짜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로 유명한 곳이다. 즉 이 지역은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 지역으로 전략적 요충지임을 말한다. 텔로 올라가니 현재 고고학 팀이 발굴 중이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발굴 팀의 책임자인 Dale W. Manor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준다. 지금까지 발굴 결과 후기 청동기 시대의 이집트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인장이 나왔으며, 또한 초중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이 발굴 팀은 미국 알칸사주에 위치한 Harding University와 뉴욕의 York College와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고 있었다.

벤세메스의 물 저장소 역시 잘 보존되어 있다. 철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이 물 저장소는 특이하게도 저장소 안쪽에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공학상 유다 지역의 물 저장소 가운데 가장 정교한 것으로 평이 나 있다.

(6) 아세가

엘라 골짜기의 아세가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휴게소에서 한식 도시락을 먹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한식인데다, 아침부터 많이 걸어서 그런지 시냇물 터라 더욱 맛있게 먹었다. 아세가에 올라가니 사방이 잘 보였다. 아세가는 대하 11장 5-10절에 르호보암이 요새화한 성읍 가운데 하나로 나온다. 또한 렘 34장 7절에 의하면, 아세가는 느브갓네살에 의하여 라기스와 함께 마지막에 함락된 성으로 나온다. 이는 유명한 라기스 편지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¹⁵⁾

(7) 얄 아스돗

이어서 벨구브린과 아스돗을 놓고 고민하다가 블레셋 지역을 보고 싶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강해 '얄 아스돗'을 방문하기로 했다. '텔 아스돗'을 가야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유적이 거의 없고, 지중해의 바다를 보고 싶다는 학회

15) "우리는 더 이상 아세가를 볼 수 없습니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본문은 다음을 보라. D. Pardee, "Lachish Ostraca 4: Military Reports," *COS III* (2002), 80쪽. 또한 산헤립이 남김 아세가 비문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 Cogan, "Sennacherib: The 'Azekah' Inscription," *COS II* (2000), 304쪽.

원들의 열망이 강해, 바닷가로 방향을 틀었다. 바다로 나가니 거대한 성채가 눈에 들어온다. 십자군 시대의 유적이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중해의 모래는 정말 곱다. 매우 희고 모래가 고왔다. 모래는 너무 뜨거워 맨발로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이다. 다만 지중해에 발을 담가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다들 즐거운 맘으로 아스돗의 해안을 즐겼다. 나오는 길에 멀리서 텔 아스돗이 보인다. 수 13수 3절에 블레셋 지역의 한 도시로 나온 이후, 사 20장 1절에서 아스돗은 앗시리아에게 멸망한다. 앗시리아는 아스돗을 점령함으로써 해안 길을 따라 이집트로 가는 루트를 만든다. 페르시아 시대 아스돗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대립하기도 했으며(느 4: 7),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비난하는 이방인들의 명단에 나온다(느 13: 23-24). 재미있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언을 ‘아스돗 말’이라고 칭했다는 점이다. 아스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였다. 텔의 발굴결과 앗시리아 시대의 궁전을 비롯한 건축물과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다. 페르시아 시대의 유물도 나오며, 그리스 시대까지도 나오지만, 그 당시 시대를 재구성할 만큼 풍부한 양은 아니다.

(8) 라기스

버스는 라기스로 가기 위해 내륙으로 향한다. 블레셋 평야가 끝없이 펼쳐진다. 블레셋 평야는 갈멜산 지역의 이스라엘 평야와 더불어 가장 비옥하며 넓은 평야 지역이다. 왜 이 지역을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펼쳤는지 이유를 짐작할만 했다.

성서에서 라기스는 수 10장에서 여호수아에 대항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다섯 도시가 연합 전선을 펼칠 때 등장하는 도시이다. 르호보암이 건축한 15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다(대하 11: 5-12). 그 후 왕하 18장에 다시 등장한다. 이 때의 라기스는 예루살렘에 견줄 만큼 큰 도시였다. 앗시리아는 예루살렘에 앞서 이 성을 쳤다. 히스기야는 라기스 전투에서 패배한 후 항복한다.¹⁶⁾ 그 후 요시아 시대에 다시 재건되었지만, 586년 바빌론의 침략으로 다시 함락된다.

버스에서 내려 성문이 있는 입구까지 올라가는 데도 한 참 걸린다. 방어를

16) 산헤립의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M. Cogan, "Sennacherib's Siege of Jerusalem," *COS II* (2000), 302-03쪽. 특히 라기스 부조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 Cogan, "Sennacherib-Lachish Relief Inscription," *COS II* (2000), 304쪽.

위해 올라오는 입구에서부터 공격이 가능하도록 성이 건설되어 있다.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 돌 위에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쌓아 두께가 6미터나 된다. 이 구조는 니스웨에서 발굴된 산헤립의 궁전 벽화에도 나와 있다. 마사다에서의 로마 군처럼, 앗시리아는 이 성을 포위한 후 경사지를 쌓아 라기스 성을 점령한다. 텔 안에는 석기 시대의 주거층과 가나안 시대의 성곽과 신전 등이 발굴되었으며, 성문 역시 왕정 시대의 것으로 보인다. 라기스의 물 시스템은 성 뒤편에 위치한 우물이었다. 성 뒤편에 흐르는 와디를 이용해 물 문제를 해결했다.

(9) 헤브론

라기스를 떠난 버스는 이제 방향을 틀어 헤브론으로 향한다. 헤브론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도시지만, 약간의 긴장을 해야 한다. 요단 서안 지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약간의 긴장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과하는 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 헤브론의 가장 중요한 유적지는 막벨라 동굴이다. 현재는 유대교 지역의 회당과 모슬림 지역의 사원으로 양분되어 들어가는 입구도 나뉘어 있다. 헤롯 시절에 지어진 거대한 성채 모양의 건물은 특이하게도 벽돌로 높이 지어졌지만 창문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무덤을 상징하기 위함일 것이다. 1994년의 총기 사건 이후, 들어가는 입구가 구분되었다고 한다. 입구에서 삼엄한 검사를 받으며 2층으로 올라가 회당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와 토라를 낭독하고 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왼쪽 벽에 큰 철장으로 된 곳에 큰 상자가 보인다.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다. 즉 그들의 관이 상징적으로 안치되어 있다. 오른쪽 벽 철장에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관이고, 그 맞은편의 사라의 관이 안치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아담의 관도 여기에 위치해 있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고 한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사기 위해 동굴에 들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으며, 주위에 촛불이 있었으며, 향기도 가득해 그 동굴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막벨라의 또 다른 지명인 '키르야트 아르바'(4의 도시=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나오게 되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관은 모슬렘 지역에 있다.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들어갈 수 없어 포기했다. 다만 그 옆에 아브넬의 무덤이 있

다. 사울의 충직한 부하였던 그는 요압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다윗이 그를 헤브론에 묻었다(삼하 3: 31-39).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브넬의 무덤이 막벨라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전한다. 그리하여 막벨라 옆에 아브넬의 관이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짜르 예후다

이어서 버스는 아랏으로 향한다. 마르레로 향하려 했지만, 유대인 경찰들이 없는 지역이어서 위험하다고 버스 기사가 겁을 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아랏으로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아랏으로 가는 지름길은 약간 험하지만, 그래도 가이드인 유 병성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갈멜과 마온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길을 택했다. 갈멜과 마온은 삼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의 고향이다. 그는 마온 사람이지만, 목축업을 갈멜에서 했다고 한다. 두 지역은 실제로 바로 붙어있다. 시간은 오후 7시를 넘었고, 잘하면 오늘 저녁은 일찍 도착해 좀 긴 휴식을 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터졌다. 요단 서안 지역을 나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국경에 어김없이 검문소가 있었다. 들어갈 때는 별 문제 없이 들어갔지만, 관광 버스는 한참을 기다렸다. 검문소 측도 난감해하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 공수 부대 출신이어서 프리패스라던 운전 기사의 힘으로도 무사 통과는 불가능해 보였다. 전부 자기 짐을 다가지고 검문소로 내려오란다. 공항 심사 통과보다 더 까다로운 짐 검사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약간은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다들 내렸다. 일찍 호텔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 짐을 통과시킨 다음에도 버스에 대한 수색까지 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최 만자 선생님(새길교회)은 쿠파 기념품 가게에서 산 소금 때문에 검색기 통과가 안 되어 가장 큰 고생을 치렀다. 날이 어두워져 버렸다. 검문소 통과에만 약 한 시간 가량이 소비되었다. 이 검문소의 이름을 “짜르 예후다”(유다의 ‘축’ 혹은 ‘길’)라고 한다. 이 지명은 이번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아랏의 호텔에 도착하니 아홉시가 다 되었다.

마지막 행사에 너무 겁을 먹었기 때문일까?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밤이었다.

5) 다섯째 날 6월 21일(월)

(1) 텔 아랏

아침에 일어나 약간 일찍 나와 한 유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러시아 출신의 이 유대인은 호텔 마당에 있는 버스를 24시간 감시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누가 버스에 폭발물을 설치할까봐서이다. 찌르 예후다의 일로 보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약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이 텔 아랏이다. 이 지역은 브엘세바와 더불어 인간이 살 수 있는 남쪽 경계선이었으며, 남쪽의 구리 광산의 개발과 더불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민 21장 1-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쪽 아랏 왕과 싸워 승리했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고고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사해의 서쪽 지역에 위치했으며, 낮은 지역과 위의 언덕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아직 직원들의 출근 시간도 안 돼 미리 도착해 텔을 올라갔다. 텔의 아래 부분은 금석병용 시대인 약 주전 4000년에서 초기 청동기(3000-2200 B.C.)까지의 주거층과 흔적들이 널려있다. 이 시기의 주거 형태는 특이하여 “아랏 집”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집이다. 그러나 주전 약 2200년부터 1000년까지는 사람이 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텔의 위 부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망대와 성전이 있으며, 성벽은 튼튼하다. 아마 아말렉이나 에돔 사람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성전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기름, 포도주, 밀 등 다양하다. 특히 성전의 지성소 부분은 다듬지 않은 돌로 되어 있으며, 2개의 마제바(주상)가 성전 앞에 서 있다. 아랏에서는 약 글씨가 쓰인 91개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다.¹⁷⁾

(2)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삿 20: 1)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브엘세바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의 도시였으며, 고대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경계였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을 기념하여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이름인 ‘브엘세바’가 유래되었다. 그 후에도 이삭과 야곱도 이 지역에서 활동했다. 족장 시대부터 시작된 역사이

17) 도자기에 쓰인 글씨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 Pardee, “Arad Ostraca,” *COS III* (2002), 81-85쪽.

므로, 브엘세바는 매우 긴 역사를 가진다. 금석병용 시대의 유물도 나오지만, 본격적인 주거는 철기 시대에 시작되며, 로마 시대를 거쳐 초기 아랍 시대까지 이어졌다.¹⁸⁾ 가장 높은 곳은 전망대이다. 높이가 107미터에 이른다. 전망대에 올라보니, 사방이 뚫린 교통의 요충지였다.

언덕을 올라 성 입구에 물 저장소가 있었다.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얼마나 깊은지, 돌을 던지자 약 5초 후에야 소리가 들린다. 아마 이 물 저장소는 지나가는 대상이나 마을 공동으로 사용되었던 우물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발길이 닿은 곳일 것이다. 이 구조는 다른 텔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물은 전시를 대비해 성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물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식이 성 안에 있다는 이야기이다. 철기 시대의 성문을 통과하여 성 안에 들어가자, 인근의 와디에서 연결된 물 저장소가 따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와디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주거 형태는 이른바 4개의 방을 가진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집이다. 브엘세바에서 발굴된 제단은 4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며, 지성소는 다듬지 않은 돌로 되어 있다. 이 구조는 텔 밖의 관광 지역에 따로 전시되어 있었다. 텔 브엘세바 이외의 곳곳에도 주거 흔적 및 유물이 남아있다. 현재의 텔 대신에 브엘세바 시장 근처에 또 다른 텔을 벤구리온 대학 주관으로 발굴 중인데,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텔을 내려오니 가이드인 유 병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의 도시락을 직접 싸오셨다. 반갑게 인사했다.

(3) 벤구리온 대학

브엘세바에 벤구리온 대학이 있다.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으며, 사막에 대한 비전을 일깨운 지도자였다. 그리하여 세워진 대학이 벤구리온 대학이다. 벤구리온 대학의 하 경택 교수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요나 사미르 교수(성서 및 고대 근동학과 교수)가 우리를 초대했다. 캠퍼스와 강의실을 둘러보고 도서관도 구경했다. 자신이 방문한 도시를 알고 싶으면, 그 도시의 대학과 박물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다. 벤구리온 대학의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이지만, 학자로서 큰 의미로 다가왔다.

18) 브엘세바의 고고학적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한 동구, “브엘세바 도시 발달사 : 철기 1기에 대한성서적 보도와 고고학적 보고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10(2001), 123-49쪽; 임 미영, “브엘세바의 부정한 제단,” 「활천」 680 (2010), 115-17쪽.

(4) 아브닷

오늘의 목적지는 팀나이다. 네게브의 마지막인 에일랏 근처여서, 장거리 여행일 수밖에 없다. 내려가는 길에 사막에 건설되었던 도시인 아브닷에 들렀다. 네게브 지역의 고지대에 형성된 도시였다. 주전 3세기경 나바티안들에 의해 지나가던 대상을 위해 건설된 이후 로마 시대를 거쳐 비잔틴 시대에 이르기까지 번영을 누렸다. 나바티안들의 건설했던 성전과 주거지 및 광장은 매우 거대한 규모였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 역시 돌기둥만 남긴 채 관광객들의 발길만 기다리고 있다. 텔을 내려와 인근의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었다.

(5) 미즈페 라몬

버스는 계속 네게브를 내려가다가 미즈페 라몬이라는 곳에 들렀다. 이른바 '막테쉬 라몬'이 펼쳐진 곳이다. 이 광야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의구심을 떨치기에 충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연 경관이다. 먼저 안내소에 들러 짧은 비디오를 보면서 전반적인 소개를 받았다. '막테쉬'란 전문 용어로 큰 산의 가운데 부분이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사암이 침식되어 가라앉으면서 형성된 움푹 파인 형태를 의미한다. 막테쉬 라몬은 이스라엘에 있는 세 개의 막테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그 길이가 40킬로미터에 이르며, 양 산 사이의 넓이가 가장 큰 곳은 9킬로미터에 이른다. 전망대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장관이었다.

네게브 지역을 가다보면 계단식 농토에 가끔씩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고대의 나바티안 시대부터 이 지역에서 지어온 농사법이다. 일 년에 100mm도 안 되는 곳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생각하지만, 비가 올 때 넓은 농토에 비를 받아두고, 가장 비가 많이 모이는 아래쪽 농토로 몰아주어 아래쪽 토지에서만 농사를 짓는 기법이다. 버스에서 멀리 벤구리온이 은퇴 후 살았다는 키부츠도 보인다. 팀나로 내려가는 길은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의 연속이었다. 박 경철 교수님이 내일 축구에 대한 예언을 했다. 내일 축구는 한국이 먼저 한 골 먹은 다음, 두 골을 넣어 나이지리아를 2:1로 이긴다는 시나리오였다. 박 교수님은 그리스 전 결과도 맞추었다고 한다. 월드컵 시즌이라 다들 월드컵 이야기에 정신이 없었다. 관광객을 만나도 월드컵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스포츠는 만국 공통어임을 확인했다.

(6) 팀나 국립공원

팀나 국립공원은 사막에 형성된 기암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사암과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기암괴석이 많다. 첫 번째 우리를 맞이한 것은 버섯 모양의 괴석이다. 그 가운데서도 금석병용 시대인 주전 3500년부터 이 지역에 구리 광산이 있어 이집트의 광부들이 와서 살았던 다양한 유적이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광산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광산이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다가 양 갈래 길에서 먼저 우측 지역으로 갔다. 주로 광부들이 남긴 흔적이 있는 곳이다. 먼저 구리를 걸러내 제련하는 곳이다. 구리는 사암 속에 존재한다. 사암을 통째로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차적인 제련 과정을 거친 다음 구리만 옮겨갔다. 당시의 제련소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당시의 광부들이 남긴 다양한 그림들이 벽 위에 그려져 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설만한 공간이 있는 거의 모든 곳에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다. 고향을 떠나 힘든 광부로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런 벽화를 그렸을까? 아래로 내려오니 이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들을 모아서 요약 정리해 놓은 설명이 안내 지역에 소개되어 있다. 날씨가 섭씨 45도였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녔다. 현재 남아있는 약 50여 개의 갱도 중 하나에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다. 학구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뒤지지 않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산 갱도 체험에 참여했다. 다 구리 광산의 수직 갱도를 따라 내려가니 약 100미터 가량 긴 갱도가 이어졌다. 거의 해병대 체험 같은 분위기였다. 버스를 타고 나와 입구에서 들어와 좌측 방향으로 갔다. 이른바 솔로몬의 기둥과 하토르의 신전이 있다. 솔로몬의 기둥은 사암이 비바람에 침식되어 기이한 모습을 띤 것이다. 솔로몬의 기둥은 실제 솔로몬과 관련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집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솔로몬의 기둥 우측 뒤편으로 가니 하토르의 신전이 남아있다. 하토르는 이집트의 풍요의 신으로 암소의 형상을 띠고 있다. 이 신전은 이집트의 19왕조 시대 세티 1세(1318-1304 B.C.) 시대에 세워진 것이며, 후에 수리된 흔적도 남아 있다.

다들 지치고 힘든 표정이었지만, 예루살렘까지 갈 일이 걱정이었다. 팀나를 나와 올라오다가 읍바다 휴게소에 들러 전열을 재정비했다. 가이드는 예루살

렘 호텔에서 식사를 위해 호텔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시간이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올라가다가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사해 근처의 식당에 들어갔다. 날씨가 무척 더웠다. 주문을 하고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일부는 사해로 들어가 수영까지 하고 왔다. 음식이 나오는 데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나오는 음식의 양이 엄청났다. 음식점을 나와 예루살렘의 호텔에 도착하니 12시였다.

6) 여섯째 날 6월 22일(화)

(1) 예루살렘(성전 산)

오늘의 일정은 둘째 날에 이어 예루살렘으로 잡혔다. 어제 너무 늦어서 오늘 아침 일정도 9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성전 산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아라우나로부터 산 타작마당 자리(삼하 24: 18-25)이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이다.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현재 성전 산 규모가 35.5에이커, 대략 42,000평 정도이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며, 가장 많은 갈등의 공간이라는 점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건물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자리로 추정되는 황금 사원과 남쪽 지역의 알 약사 사원이다. 둘 다 이슬람 유적지이다. 황금 사원은 주후 688년에 시작하여 691년까지 이슬람의 칼리프 압둘 말리크에 의하여 세워졌다가, 파괴와 재건을 거듭하다가 16세기경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오마르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전통적으로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마드가 하늘로 승천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슬람 전통에 의하면 메카, 메디나에 이어 3번째 거룩한 곳이다. 황금 사원의 내부는 들어갈 수 없다. 사원의 주변만 둘러볼 뿐이다. 알 약사 사원은 무하마드의 '밤의 여행'에 등장하는 '가장 먼 곳'이다. 성서에 의하면, 솔로몬의 마병장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압둘 말리크의 아들인 칼리프 엘-왈리드가 706년에 건설했다. 그러나 원래의 건물은 무너지고, 십자군이 궁전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그러나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다시 사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알 약사 사원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흥미를 끈 것은 '저울의 아치'였다. 이 저울은 심판의 날 사람들의 영혼을 달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진다고 한다.

(3) 예루살렘(다윗의 도시)

이어서 다윗의 도시로 들어갔다. 첫 날 들렀던 오펔 지역의 남쪽으로 걸어 가다가 '다윗의 도시 고고학 정원'이 나온다. 들어가서 3D 입체 영상으로 된 비디오를 관람하고, 나와 철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이 하스몬 시대에 건축된 성벽이었다. 가나안 시대에서부터 비잔틴 시대에 이르기 까지 역사의 때가 묻은 돌 구조와 망대들이 어지럽게 이어진다. 내려가다가 '아히엘의 집'이라는 뜻말이 붙어있다. 발굴된 곳의 도자기에서 '집주인 아히엘'이라는 이름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집 구조이며, 바벨론 침략 당시 무너졌다가 발굴 팀에 의해 재건되었다. 이어서 철 계단을 타고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지하 동굴을 계속 내려가다가 와렌 통로가 나온다. 1871년 영국의 찰스 와렌이 발견한 통로로, 기혼 샘에서 수직으로 뚫린 통로이다. 기혼 샘까지 물을 길으러 내려가는 고생을 덜기 위해 왕정 시대에 판 것으로 보인다. 전시에도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 내에서도 물을 길 수 있도록 된 체제이다. 유사한 체제는 므깃도, 하술, 게셀 및 기브온에서도 발견된다. 다시 계단을 계속 내려가다가 가나안의 도시의 흔적이 발견된다. 이집트의 저주 문서(19-18세기)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우르살리뭉'으로 언급된다. 가나안의 건축물은 기혼 샘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로 이해할 수 있다.

(4) 실로암 터널

이어서 도착한 곳이 기드론 골짜기의 기혼 샘이다. 기혼 샘은 창 2장 13절에 기혼 강으로 나와, 기혼 샘이 천지 창조의 원리 가운데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혼 샘이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는 생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기혼 샘은 원래 동굴에서 솟아 나오는 샘이라, 기드론 골짜기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면 성 안에서 자연 동굴로 내려가는 길이 유일한 접근 방법이다. 기혼 샘에서 533미터에 이르는 S자 형태로 된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하기로 했다. 모두들 짧은 바지를 입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초반에 물이 꽤 높이 차 오르는 지역도 있었지만, 랜턴을 켜 채 대부분 무난히 지나갈 수 있었다. 이 터널은 바위로 된 것을 깎아 만든 것이다. 왕하 20장 20절에 나온 대로 히스기야가 앗시리아에 대비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만든 것이다. 터널의 높이는 1.5m-2.5m이며, 기혼 샘에서 실로암 물 저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고도는 2m 밖에 차이가 안 난다. 2m의 차이

를 이용해 533m를 인공으로 파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니, 당시의 토목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실로암 비문'에 의하면 기혼 샘과 실로암 물 저장소에서 각각 파 들어가 가운데서 만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다.¹⁹⁾ 실로암 물 저장소는 원래 꽤 큰 연못이었지만, 지금은 자그마한 개울 정도이다.

(5) 야드바셀

이제 과거의 예루살렘을 벗어나 헤르즐 산에 위치한 야드바셀(기념물과 이름, 사 56: 5)으로 향했다. 이곳은 유대인의 수난사의 절정에 이르는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곳이다. 먼저 기념관으로 들어갔다. 역사적 순서로 4개의 방으로 되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 이어진다. "망각은 과거의 치욕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나 기억은 구원에 이르는 비결이다." 기념관을 나와 오른쪽으로 올라가니 '이름들의 방'이 나온다. 나찌에 의해 희생된 자들의 인적 사항이 보관되어 있다. 가장 충격적인 방은 '어린이들의 방'이다. 나찌에 의해 희생된 미국의 한 부모가 자기 아들을 위해 세웠다. 유리로 된 방에는 거울 속에 비춰는 촛불이 타고 있으며, 무거운 음악과 함께 희생된 어린이의 이름과 나이, 희생된 장소가 반복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 다시 오른쪽에 "야누스 코르작 정원"으로 들어갔다. 정원의 가운데 조각이 시선을 끈다. 폴란드의 작은 학교에서 가르치던 코르작 선생님은 유대인 아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온 독일 병사들을 보고 겁에 질린 자신의 학생을 껴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들른 정원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치가 학살 위협에서 유대인을 구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다. 많은 꽃다발이 놓인 나무에 다가가 보니 그 이름이 "오스카 쉰들러"이다. 스피버그가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다. 그는 사업가로 1200명의 유대인을 구해냈다.

(6) 이스라엘 박물관 & 성서 박물관

예루살렘 시내의 한 공원에서 한식 도시락을 먹었다. 식사 후 일정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호텔로 들어가 쉬고, 또 다른 팀은 벤 예후다 거리를 자유롭게 구경했다. 오후 4시에 만나 이스라엘 박물관으로 갔다. 이스라

19) K. L. Younger, Jr., "The Siloam Tunnel Inscription," *COS II* (2000), 145-46쪽.

엘 박물관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일부만 열었다. 박물관 내에서 처음으로 간 곳은 주후 70년 정도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예루살렘을 1/50의 크기로 재구성해 놓은 모형도였다. 1960년대 히브리 대학의 아비 요나 교수에 의해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현재의 위치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은 2006년부터이다. 갈보리는 2차 성벽밖에 위치한다. 3차 성벽은 헤롯 아그립바(A.D. 41-44)에 의해 완성되었으므로, 예수님 당시의 갈보리는 성 바깥이었다. 재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만큼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을 재구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성서 박물관으로 갔다. 박물관의 지붕은 사해에서 두루마리 성서를 담았던 항아리의 뚜껑 모습이었다. 흰색으로 된 박물관이 이색적이었다. 이 박물관에서는 주로 사해 사본 및 알렙보 코덱스와 관련된 내용을 전시하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에서 발굴하거나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성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7) 서쪽 벽 터널

호텔로 들어와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시 통곡의 벽 근처로 갔다. '서쪽 벽 터널'을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우리 팀은 저녁 8시 20분부터 관람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 이곳은 원래 터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이었으나, 현재 지평은 일반 사람들의 거주지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터널이 되어 버린 것이다. 총 길이는 485미터이다. 입구로 들어가자 월슨 아치 방으로 들어갔다. 로빈슨 아치와 함께 성전 산으로 연결된 길이다. 길을 따라 가면서 성전의 서편 벽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돌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비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북쪽 지역에 이르자 하스몬 시대에 판수로가 나온다. 그 수로의 끝 부분에는 거대한 물 저장소가 나온다. 하스몬 시대에 이르러 기혼 샘의 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다. 그리하여 베들레헴 근처의 솔로몬의 우물로부터 연결된 수로를 통하여 물 문제를 해결했다. 물 저장소에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 나와야 했다. 다른 출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8) 월드컵: 나이지리아 전

호텔로 돌아오니 거의 9시 30분이 다 되었다. 우리가 묵는 호텔의 한 편에 위치한 커피숍을 통째로 빌렸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시청하던 중, 우리

가 먼저 한 골을 먹었다. 안타까웠지만 박 경철 교수님의 예언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전반전 이 정수 선수의 골로 1:1로 마쳤다. 후반 들어 박 주영 선수가 프리킥을 칠 때, 박 경철 교수님께서 이번에 골이 들어간다고 했다. 거짓말처럼 골이 들어갔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박 경철 교수님의 시나리오 대로 이루어졌다. 박 경철 교수가 등장하려는 순간, 다행히도(?) 우리가 다시 한 골을 먹었다. 박 경철 교수가 박 경철 교수로 회복된 순간이었다. 2:2로 비겼지만, 아르헨티나가 그리스를 이겨, 우리가 16강에 진출했다. 왕 대일 회장이 커피 값을 모두 지불했다. 다들 얼싸안고 축제의 밤을 보냈다.

7) 일곱째 날 6월 23일(수)

(1) 아벡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버스는 북서쪽으로 달린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현대 지명 안티파트리스로, 성서의 아벡이다. 또 다른 지명은 '로쉬 하이인'이다. 즉 "샘의 근원"이라고 한다. 이 지역의 물이 이 도시를 발전시킨 원인이었음을 말해준다. 20세기 초 영국 식민지 시절의 예루살렘 물을 여기서 통해서 해결했다고 한다. 이 샘은 텔아비브 근처를 흘러 지중해로 들어가는 야르콘 강의 발원지이다. 그러므로 해안 길은 야르콘 강을 건널 수 없어 내륙으로 돌아 아벡까지 와서 돌아가야 했다. 또한 해안 길에서 내륙으로 들어와 왕의 길과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주전 4000년부터 주거 흔적이 발견되며, 초기 이스라엘 시대(삼상 4장) 블레셋은 여기에 거점을 두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치렀다. 제 2 성전 시대에, 헤롯이 이 도시를 재건한 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 '안티파트리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오토만 시대에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성벽을 짓고 요새화했다.

(2) 가이사라

다시 버스는 북쪽으로 달려 가이사라에 도착했다.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주전 22-10에 걸쳐 세운 도시이다. 헤롯 대왕은 그리스 시대부터 미미하게 사용되는 작은 항구를 거대한 로마 식 도시로 변모시켰다. 그리하여 자신을 후원한 시저를 기리기 위해 '가이사라'라고 지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대신에 새로이 건설한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가이사라

는 주후 6년부터 로마의 총독부가 주둔했으며, 약 600년간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였다. 헤롯이 남긴 유적은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바닷가에 위치한 궁전이다. 바닷가에 위치한 풀장까지 갖추고 있다. 궁전을 나와 우측 안쪽으로 들어가니 원형 극장이다. 아직 기둥과 성벽이 어지럽게 남아 있다. 약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극장은 비잔틴 시대까지 이용되었다. 원형 극장을 나와 버스를 타고 수로가 있는 지역까지 왔지만, 시간 관계상 사진만 찍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가이사라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운하를 만들어 인근의 샘과 강에서 물을 공급했다. 바닷가에 위치한 높은 수로는 8미터, 낮은 수로는 5.5미터로 되어 있다.

(3) 갈멜산

버스는 갈멜 산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의 동상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바알 신앙에 물 들고 있는 우리를 치기 위한 칼처럼 보인다. '불의 제단'이라 불리는 갈멜 산 수도원의 꼭대기에 올라가자 이스라엘 평야가 눈앞에 펼쳐진다. 앞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강이 '기손 강'이다(왕상 18: 40). '갈멜'이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이다. 두 의미를 합하면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라는 의미이다. 그만큼 풍요로운 지역이다.

(4) 므깃도

므깃도에 도착했다. 공원 내에 위치한 식당에서 현지 식 식사를 했다. 므깃도는 계 16장 16절에서 '아마겟돈'으로 나온다. 이 지명은 히브리어 '하르 므깃도'의 헬라어 음역이다. 최후의 전쟁은 므깃도 산에서 벌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므깃도는 역사적으로 전쟁의 중심지였다. 해안 길의 중심지로 교통의 요지였으며, 이스라엘 평야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물자가 총집결되는 곳이 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투투모스 3세의 가나안 원정 기록에 등장한 이후,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연루된 도시였다. 솔로몬 시대의 시삭 역시 므깃도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솔로몬과 아합 왕은 므깃도를 요새화하고 전쟁에 대비하도록 우물을 파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왕상 9: 15-19). 선한 왕 요시아는 므깃도에서 벌어진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므깃도의 성

문은 '기역 자'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말을 타고 직선으로 성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므깃도에는 아합 시대로 추정되는 거대한 마병장이 있다. 말을 매던 돌과 구유가 흩어져 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곡물 창고 역시 잘 보존되어 있다. 가장 놀랄만한 것은 아합 시대에 건설된 물 체계이다. 샘물이 성밖에 있으므로, 전쟁이 일어나 샘물이 점령당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일단 성 내에서 수직으로 갭을 판 다음 수평으로 터널을 파서 샘과 연결시켰다. 그러므로 성내의 주민들은 성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물을 길 수 있었다.

(5) 다불산

다불 산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우뚝 솟아 있어 올라가면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불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 올라가는 길이 좁고 너무 굽어 있어 버스로는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산 입구에 미니 밴들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산 정상에 올라가니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세워진 '변모 교회'가 있다. 이탈리아 건축가인 안토니오 바루치에 의하여 지어져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다불 산은 사사기에서 여 선지자 드보라가 바로크로 하여금 군사를 소집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는 과정에 나온다(삿 4: 12). 현재는 마 17장 1-5절의 변화 산을 다불 산으로 인식하고 변화산기념 교회가 들어서 있다. 이는 주후 348년 예루살렘의 시릴이 다불 산을 변화산으로 확정한 이후 생겨난 전승이다. 하지만 변화 산은 마 17장 1절의 "옛 새 후"와 눅 9장 28절의 "팔 일쯤"에 근거해, 갈릴리에서의 거리로 보아 일주일 정도의 거리라면 헬몬 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6) 벤산

왕 대일 회장이 벤산은 꼭 봐야한다며 우리를 재촉한다. 문 닫는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둘러 간 결과 무사히 도착했다. 성서에서 벤산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이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다(삿 1: 27). 삼상 31장 7-1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 없는 시체를 벤산 성벽에 못 박았다. 주전 3세기경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온 후, 스키토폴리스라 칭하면서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다. 로마 및 비잔틴 시대의 이 도시는, 현재 유적으로 남은 로마 식 원형 극장과 '카르도'라고 불리는 로마 식

길을 보아,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모자이크로 꾸며진 목욕탕과 주거지는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749년의 지진으로 인하여 이 도시는 무너지고 만다. 성 안으로 들어가 철계단을 따라 올라간 언덕 위에는 주로 초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남아있다. 이집트의 세티 1세가 세운 기념비와 성전 구조물들이 복원되어 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뿔산은 이집트의 영향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 갈릴리 호수

버스는 '갈릴리 호수 선상 유람'을 위해 달린다. 5시 20분 배를 예약해 놓았다. 다행히 제 시간에 디베라에 도착해 30분간 배를 탔다. 손님은 우리뿐이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기 게양식이 있었다. 의례화된 순서로 보였다. 이어서 박 경철 교수님의 사회로 선상 기도회를 열었다. 한두 곡의 찬양에 이어, 이 영미 교수님 기도가 있었다. 갈등과 미움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찌르 예후다를 언급하면서 드린 기도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우리 모두 평화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은 시간이었다. 다 같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낭독하면서 기도회를 마쳤다. 이어서 가이드인 유 병성 목사님의 흥겨운 이스라엘 민요를 시작으로, 유쾌한 선상 축제가 이어졌다.

(8) 성만찬

갈릴리 호수 남쪽에 위치한 마야간 키부츠 호텔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 호수가 내려다보이고 잘 꾸며진 정원이 있는 호텔이었다. 방을 배정 받고 식사 후에, 구약학회 여성 회원들이 주관이 되어 성만찬을 열었다. 김 순영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가 열렸다. 이 경숙 교수님은 '평화'에 관하여, 최 만자 선생님은 '생명'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했다.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인 두 주제를 두 사람이 전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무척 감동적이었다. 이어서 성만찬이 거행되었다. 빵을 포도주에 적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짧지만 감동이 축약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왕 대일 회장님의 감회와 감동의 말씀이 이어졌다. 이 성지 연수를 위해 애쓴 많은 분께 감사를 드렸다. 이스라엘에서 머물 마지막 밤이다. 예수님의 활동 본거지였던 갈릴리가 아닌가? 어찌 감사와 감동을 잊을 수 있겠는가?

8) 8일째 날 6월 24일(목)

(1) 벳새다

마지막 날이다. 모두 짐을 챙겨 들고 나와 버스에 실은 후 처음으로 들른 곳은 '벳새다'이다. 신약 성서에서 벳새다는 고라신, 거라사와 함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며, 눅 9장 10절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다. 하지만 벳새다가 지도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이후이다. 현재의 벳새다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발굴한 사람은 1838년 에드워드 로빈슨이다. 그는 당시의 '에-텔'을 벳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벳새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너무 멀다는 점에서 로빈슨의 주장을 의문시켰다. 1970년대 중반 에-텔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해 에-텔이 벳새다라는 증거를 모았으며, 1987년 다시 시작된 발굴로 인해, 에-텔을 벳새다로 확인하게 되었다.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함의 기반이 되는 도시가 벳새다라고 보았다. 벳새다는 주전 10세기부터의 고고학적 증거가 나온다. 성문은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위쪽의 성문 위에 '바마'가 나오며, 제단도 등장하지만, 734년 티글랏-필레셀 3세에 의하며 파괴되었다. 벳새다의 궁전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궁전 구조물인 '비트 할라니'가 발굴된다. 이 궁전은 15미터의 넓이와 28미터의 길이로 되어 있으며, 거대한 돌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님 당시의 벳새다는 농민과 어민이 거주했으며,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하에 있었다.

(2) 가버나움

이어서 버스는 예수님이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가버나움은 구약성서에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불렀으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가르친 곳이다. 현재 남아 있는 유적 가운데 베드로의 생가 위에 지어진 교회와 유대인 회당이 가장 유명하다. 베드로의 생가는 현재 8각형 교회로 세워졌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 기초가 발굴되었다. 아마 예수님도 이 회당에 다녔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구조는 주후 4-5세기에 지어진 것이다. 출구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으며, 2층으로 되어 남녀가 구별해 예배를 드렸다.

(2) 다브가

이어서 가버나움 옆의 다브가로 갔다. 그리스어에 의하면 "일곱 샘"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다. 그 자리에 약 4세기경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현재 재건된 교회는 바닥에 그려진 모자이크를 잘 보존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쌍어 모자이크가 교회 바닥에 그려져 있다. 베드로수위권교회와 팔복교회는 시간 관계상 건너뛰어야 했다.

(3) 골란 고원

버스는 골란 고원을 향한다. 성서에는 이 지역을 그술로 불렀으며, 원래 바산의 옥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으나, 정복 후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6일 전쟁 후 시리아로부터 뺏은 땅이지만, 돌려주기에는 곤란하다는 골란 고원이다. 약 1시간 가량 달린 후 헬몬 산 전망대에 도착했다. '쿠네이트라'라는 곳이다. 멀리서 헬몬 산(2,224m)이 보인다. 시리아와의 국경 지역은 비무장 지역으로 흰색 건물의 유엔 군이 보인다.

(4) 바니아스, 가이사라 빌립보

골란 고원을 내려와 바니아스로 가는 길에 십자군 시대에 쌓은 님롯 성채가 산 위에 보인다. 고원을 내려와 도착한 곳은 바니아스였다. 구약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신약성서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한 곳으로 유명하다(마 16: 13-20).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로부터 선물 받은 도시였으며,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었다. 그리스 시대에 목축의 신, 판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거주했던 아랍 사람들은 p 발음을 b로 발음해 '바니아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랍어에는 p 발음이 없기 때문이다. 공원 입구로 들어가니 요단강의 발원지인 바니아스 샘이 보인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니 판 신전이 세워진 동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값진 이유가 더욱 명확하게 다가온다. 주차장 쪽으로 나와 보니 요단강의 발원이 되는 강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이드 목사님은 우리의 반응이 영 마음에 안 들었는지 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바니아스 폭포에 들렀다. 버스에서 내리니 헬몬 산에서 생산한 체리와 작은 배를 사서 나누어주었다.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니 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졌다. 요단강은 헬몬 산의 바니아스, 하스바니, 단 지역에서 발원하여 오다가 합하여 북 요단 강을 형성

해 갈릴리로 들어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사해까지의 강으로, 남 요단 강에 해당된다.

(5) 텔 단

텔 단에 도착했다. '단'은 '브엘세바'에서 '단'으로 명명되듯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이며, 여로보암이 벤엘과 함께 세운 황금 송아지로 유명하다. 시원한 숲 길을 한참 걸어 나무 그늘 아래 쉼터에 이른다. '엔 단'으로 요단강의 발원지 중의 하나이다. 다시 내려 위로 올라가니 고고학 발굴지들이 나타난다. 고대 가나안의 성전, 성벽, 주거 흔적들이 나온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성문이 나온다. 성문 입구에 광장이 나온다. 흔히 성문 입구에서 재판이 열리고, 사람들이 뵈뵈다. 그 공간을 기념해 보았다. '텔 단 비문'이 발견된 장소도 볼 수 있다. 다윗 왕의 이름이 성서 밖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중요한 비문이다.²⁰⁾ 원래 세워진 비문이 부서지고, 부서진 조각이 성을 쌓는 데 이용되었다가, 1993년 발견된 것이다. 성문을 열고 단았던 흔적들까지 남아 있다.

(6) 하솔

단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던 텔 하솔에 들렀다. 유명세에 어울리게 매우 큰 성이었다. 성문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성문과 솔로몬이 개 보수한 성문이 혼재되어 있다. 성문으로 들어가 좌측 편에 중기 청동기 및 후기 청동기 시대의 왕궁이 발굴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췌기 문자로 발굴된 토판, 보석 등이 발굴되었다. 이 지역은 주전 13세기경에 파괴되었다. 성은 아합 시대에 하부 지역에 성이 세워졌으며, 상부 지역에서도 주거지가 확대되었다. 아합 시대에 만들어진 우물은 약 45미터의 깊이로 대단한 규모였다. 이 우물로 인하여 주민들은 물을 길으러 성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다.

(7) 성 베드로 물고기

시간이 늦었다. 예정된 성 베드로 물고기 식사를 위해 식당에 도착하니, 거의 2시였다. 갈릴리 호수 옆에서 먹은 성 베드로 물고기는 별 맛은 없었다.

20) 비문의 내용은 다음을 보라. Alan Millard, "The Tell Dan Stele," *COSS II* (2000), 161-62쪽.

아마 요리가 문제인 것 같았다. 한국 요리사에게 맡기면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호수가에서 잠시 쉬을 가진 후에 다시 버스를 탔다. 이제부터 텔아비브까지는 서둘러 가야 한다.

(8) 옘바

가는 길에 가나 지역을 통과한다. 통과하면서 가나의 혼인 잔치가 벌어졌던 교회를 멀리서나마 보고 지날 수밖에 없었다. 나사렛을 통과했다. 통과하면서 수태고지교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사진을 위해 나사렛 로터리를 세 바퀴나 돌았다. 옘바로 와서 중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갔다. 벤구리온 공항은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했다. 하지만 골치 아픈 공항 검색대 통과로 인해 내 마음은 더 복잡했다.

9) 9일째 날 6월 25일(금)

새벽 00시 20분에 벤구리온 공항을 이륙한 후, 비행기는 약 10시간 후 오후 5시 00분에 인천 공항에 내렸다. 이 경숙 교수님의 기도로 해산식을 대신했다. 8박 9일의 대장정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3. 마무리

‘에레츠 이스라엘’은 아무리 다녀와도 늘 새롭고,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돌아오곤 한다. 그것은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까지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작고 척박한 땅에서 최고의 영적이고 지적인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아이러니에 속한다. 한 편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인 ‘평화’는 매우 어려운 난제이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에레츠 이스라엘’ 순례는 우리가 씨름해야 할 구약성서 이해에 소중한 지적, 영적 영양분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한국 구약학회(특히 왕 대일 회장님께)에 진심으로 ‘토다 라바’를 전한다.

4. 참고문헌

- 김 성, 「성서 고고학 이야기」 (서울: 동방 미디어, 2002).
- 유 재호, 「성서의 땅」 (서울: 기독교 연합 여행사, 2005).
- 임 미영, “브엘세바의 부정한 제단,” 「활천」 680 (2010), 115-117쪽.
- 천 사무엘, 「사해사본과 쿨란 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최 창모, 「돌멩이를 먹고 사는 사람들 1」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_____, 「돌멩이를 먹고 사는 사람들 2」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한 동구, “브엘세바 도시 발달사 : 철기 I기에 대한 성서적 보도와 고고학적 보고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10 (2001), 123-149쪽.
 Aharoni, Y.,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9).
 Borowski, B., *Bible Lands Museum Jerusalem: Guide to the Collection*, (Jerusalem: Keter Enterprises, 2002).
 Hallo, W. et al (eds.), *The Context of Scripture II*, (Leiden: Brill, 2000).
 _____, *The Context of Scripture III* (Leiden: Brill, 2002).
 Levi, A. and R., *Bazak Guide to Israel and Jordan*, (New York: Sterling Publishing Co., 1996).
 Roitman, A., *The Bible in the Shrine of the Book*, (Jerusalem: The Israel Museum, 2006).
 Wagner, E., *Illustrated Guide to Jerusalem*,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1988).

검색어

이스라엘
 게셀
 여리고
 하솔
 브엘세바
 라기스

투고일: 2010년 8월 1일
 심사일: 2010년 11월 1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일

KOTS goes to 'Erets Israel'

Yoon-Jong Yoo,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eongtaek University

This essay purposes to describe KOTS's visit to 'Eretz Israel' in celebration for jubilee year anniversary with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explanations. The essay is arrayed in chronological order which we visited. Twenty eight members joined from June 17 to June 25, 2010.

First, I would like to classify places where we visi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though some places are ambiguous to classify: **1) The ancient Tel or ruins:** Archaeological Garden and City of David in Jerusalem, Jericho, Qumran, Masada, Aphek, Meggido, Beth Shan, Avdat, Gezer, Azekah, Lachish, Tel Arad, Beersheba, Tel Dan, Hasor, Bethsaida, Capernaum, **2) Historical sites:** Dung Gate, Damascus Gate, Tomb of Rachel, Via Dolorosa, Bethany, Mt. Olives, Western Wall, Western Wall Tunnel, Temple Mount, Siloam Tunnel, Akeldama, Kidron valley, Ein Kerem, Tabga, Hebron (Machpelah), Caesarea, **3) Natural Scenic Area:** Dead Sea, Sea of Galilee, Yam Ashdod, Engedi, Wadi Qelt, Mt. Carmel, Mt. Tabor, Golan Heights, Baniyas, Dead Sea, Jordan River, Mitzpe Ramon, Timna National Park, **4) Museum or institution:** Bible Land Museum, Israel Museum, Bible Museum, Yad wa Shem, Tzir Yehuda, Bengurion University.

Second, I like to classify places where we visited according to geography of Israel: **1) Judaeen & Ephraim Mountain:** Jerusalem, Bethany, Jericho, Hebron, Qumran, Dead Sea, Masada, Beth Shan, Ein Kerem, **2) Negev Area:** Beersheba, Avdat, Arad, Timnah National Park, **3) Shepelah:** Gezer, Azekah, Beth Semesh, Lachish, **4) Galilee & North:** Hasor, Dan, Capernaum, Golan Heights, **5) Central Hill area:** Meggido, Mt. Carmel, Jezreel, **5) Sea:** Yam Ashdod, Caesarea. Joppa.

To an Old Testament scholar, Eretz Israel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to study. It was a great chance to study Eretz Israel systematically in person. During seven days, we have visited more than sixty places in all over the Israel. We moved here and there like military training. It was tough, but nobody complained. Eretz Israel is soil from which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came from. However, unfortunately, because of security problem, we cannot visit many places in West Bank and Gaza. It is quite irony. It provides the reason why we have to pray for the peace of the world.

In sum, it is quite certain that the visit was illuminating, challenging, and enhancing for KOTS members' understanding to the Old Testament.

Keywords

Beersheba
Gezer
Hasor
Jericho
Lachish
Israel